

골계한시의 성격과 계승

성 범 중*

I. 머리말

徐居正(1420~1488)의 『太平閑話滑稽傳』은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문헌설화집으로서, 거기에 실린 작품들은 士大夫逸話 중 笑談類,¹⁾ 또는 識者 笑話²⁾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 책의 식자 소화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킨 박경신 교수에 따르면, 식자 소화는 사대부일화와 성격을 공유하되 거기에 다음 몇 가지 성격이 더해진다고 한다.

첫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식자층인 경우가 많지만 서술자와 청자는 언제나 식자층이다.

둘째 典故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셋째 시나 詩句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넷째 글자나 글귀를 이용한 이야기들이 상당수 있다.

다섯째 소화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품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견지한다.³⁾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 1) 이강옥, 「조선초·중기 일화의 형성과 변모과정 연구 —『大東野乘』所載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8.
- 2) 박경신, 「徐居正의 설화문학 —識者 笑話로서의 『太平閑話滑稽傳』을 중심으로—, (이종묵 외, 『서거정 문학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235~321면 수록).

따라서 『태평한화골계전』은 식자층이 즐기던 소화로서 典故를 가지거나 詩(句)를 포함한 이야기가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한시(구)들은 배경이 되는 소화의 분위기와 정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아 온 일반 한시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소화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스운 일화이므로 거기에 포함된 한시는 당연히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한시의 대다수가 산수 등의 자연이나 경물을 다루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책에 수록된 한시들은 문집이나 선집에 실린 일반 한시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임에 틀림없다. 즉 이 한시(구)들은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태평한화골계전』에 실린 한시들처럼 滑稽, 즉 諷諫의 정신과 익살을 담음으로써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한시들을 일단 골계한시라고 명명하고, 그 성격을 살펴본 다음 이 범주에 속하는 한시의 계승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료는 『태평한화골계전』에 실린 작품으로 하되⁴⁾ 필요에 따라 다른 자료들도 일부 활용하기로 하겠다.

II. 골계와 골계한시의 개념

골계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그것이 사용된 실례를 검토해 보자. 골계라는 용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楚辭』에서 屈原의 <卜居> 중

3) 위와 같음. 인용문은 위의 논문에서 해당부분을 축약한 것이다.

4) 자료는 박경신 역주, 『태평한화골계전』1·2(국학자료원, 1998)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발견된 이본들을 대비하여 종합하고 類話도 정리하고 있다. 작품의 인용에서 번역은 이 책을 따랐지만, 번역에 필자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 첨삭, 수정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청렴과 정직으로 스스로 맑게 할까?

아니면 순종하며滑稽하며 기름처럼 가죽처럼 모난 곳 없이 등글게 할까?

寧廉潔正直 以自清乎 將突梯滑稽 如脂如韋 以潔楹乎

라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골계’는 ‘청렴’과 ‘정직’에 대립되는 부정적 개념이다.

그 다음의 용례는 司馬遷의 『史記』 「列傳」에서 찾을 수 있다. <樗里子甘茂列傳>에 “저리자는滑稽하고 지혜가 많아 秦나라 사람들이 지혜 주머니라고 불렀다.(樗里子滑稽多智 秦人號曰 智囊)”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 索隱 注에서 “滑은 어지럽히는 것이고, 稽는 같은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른 것을 옳은 듯이 말하고, 옳은 것을 그른 듯이 말하여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어지럽힐 수 있음을 말한다.(滑亂也 稽同也 謂辯捷之人 言非若是 言是若非 能亂同異也)”라고 하여, 골계가 진위를 어지럽힐 수 있을 정도의 빼어난 말솜씨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에 반해, 正義 注에서는 “滑은 溜로 읽는데 물줄기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稽는 헤아림이다. 그 지혜와 계책을 말로 토해냄이 마치 샘물이 흘러나와 다함이 없는 것과 같다.(滑 讀爲溜 水流自出 稽計也 言其智計宣吐 如泉流出無盡)”라고 하여, 골계를 지혜와 계책이 물줄기처럼 다함 없이 흘러나온다 고 파악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골계는 매우 빼어난 말솜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일치하고 있다.

또 『사기』 「열전」 권66의 <滑稽列傳>은 골계적 인물의 전기를 모아 놓은 기록인 만큼 골계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① 순우곤은 제나라의 데릴사위였다. 키가 일곱 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익살스럽고 辯說에 능하여 여러 번 제후에게 사형하여 일찍이 굴욕을 당하지 않았다.(淳于斃者 齊之贅婿也 長不滿七尺 滑稽多辯 數使諸侯 未嘗屈辱)
- ② 우맹은 본디 초나라의 樂人이었다. 키가 여덟 자에 말이 많아 언제나 담소로써 풍간하였다.(優孟 故楚之樂人也 長八尺 多辯 常以談笑諷諷)
- ③ 우전은 진나라의 난장이 倡優였다. 우스운 소리를 잘하였으나 도리에 맞았

다.(優施者 秦倡侏儒也 善爲笑言 然合於大道)

- ④ 무제 때 충애를 받은 창우에 광사인이라는 자가 있었다. 말을 꺼내고 늘어 놓은 것이 비록 도리에 맞지 않았으나 임금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武帝時有所幸倡郭舍人者 發言陳辭雖不合大道 然令人主和說)

①은 익살과 빼어난 말솜씨로 자기의 체신을 지킨 예, ②는 빼어난 말솜씨를 바탕으로 담소로써 풍간한 예, ③은 도리에 맞는 우스갯소리를 한 예, ④는 도리에 맞지 않는 말로 임금의 마음을 기쁘게 한 예이다. 따라서 골계란 빼어난 말솜씨와 익살을 바탕으로 자기의 체신을 지키거나 풍간하는 것, 또는 우스갯소리 속에 바른 길을 제시하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말로 윗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등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골원은 골계를 부정적으로 파악하였으나, 사마천은 골계의 풍간 또는 체면 유지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빼어난 말솜씨와 익살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골계는 문자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말에 의한 것이고, 주인공과 그 상대역을 상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주인공의 상대역에 대한 풍간 또는 아부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골계한시란 무엇인가? 골계한시는 골계를 내용으로 하는 한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먼저 그 예를 『사기』의 <골계열전>에서 찾아보고 그 성격을 규정해 보기로 하자.

산 속에 살면 발을 갈며 고생해도
 먹을 것을 얻기 어려워
 몸을 일으켜 관리의 몸이 되네.
 탐욕스럽고 비루한 자는 재물이 남아도
 염치와 욕됨을 돌아보지 않아
 몸이 죽어도 집안은 부유하네.
 또 두렵기는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겨 간악하게 대죄에 저촉되어
 몸이 죽고 집안이 망하는 것이니
 탐욕스러운 관리노릇을 어찌 하겠는가?

청렴한 관리가 되어 법을 받들고 직책을 지킬 것을 생각하지만
 죽을 때까지 감히 그릇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니
 청렴한 관리노릇을 어찌 하겠는가?
 초나라 재상 손숙오는 청렴을 지키다 죽었는데
 지금 처자식이 궁핍하여 딸나무를 저서 먹으니
 족히 할 만한 게 못 되네.

山居耕田苦 難以得食 起而爲吏身
 貪鄙者餘財 不顧恥辱 身死家室富
 又恐受賂枉法爲姦觸大罪 身死而家滅 貪吏安可爲也
 念爲廉吏奉法守職 竟死不敢爲非 廉吏安可爲也
 楚相孫叔敖持廉至死 方今妻子窮困負薪而食 不足爲也

이 인용문은 우맹이 재상 손숙오의 사후에 그의 처자식이 굶주리는 상황을 가지고 楚 莊王을 풍간하는 과정에서 부른 노래(歌)이다. 농사를 지어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가 되는데, 탐관오리가 되면 집안이 부유하지만 법에 저촉되어 별문지화를 당할까 두렵고, 청렴한 관리가 되고 싶어도 사후에 처자식이 굶주리는 손숙오처럼 될까 두려워서 할 만한 일이 못 된다고 했다. 이 노래는 왕이 돌보지 않은 손숙오의 처자식이 굶주리는 모습을 그대로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이 노래는 <골계열전>에서 우맹이 아내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손숙오의 처자식이 처한 궁핍상을 다시 노래의 형식으로 반복하여 보여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⁵⁾

골계한시는 바로 이런 성격의 운문을 계승한 것으로서 어떤 사건의 발

5) 이 노래의 바로 앞에서 있는 優孟의 말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말하기를, ‘삼가서 하지 마십시오. 초나라의 재상이란 족히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손숙오가 초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는 충성을 다하고 청렴하게 초나라를 다스려서, 초나라 왕은 霸者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자, 그 아들은 송곳 꽃을 만한 땅이 없고, 빈곤하여 딸나무를 저서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합니다. 반드시 손숙오처럼 될 테니 자살하느니만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孟曰 婦言愼無爲 楚相不足爲也 如孫叔敖之爲楚相 盡忠爲廉以治楚 楚王得以霸 今死 其子無立錐之地 貧困負薪以自飲食 必如孫叔敖 不如自殺)”

생과 추이의 반영물이며 그것에 대한 공간이다. 즉 골계한시는 일반 한시와 달리 시의 내용 중에 그 시를 짓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의 발생과 경과라는 배경의 이야기 곧 서사적 맥락이 제시되고, 또 상대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사건의 사실적 정황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보여준다. 그 결과 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의해 왜곡된 정황, 곧 우스운 상황을 시의 문맥 속에 제시함으로써 독자를 웃음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요컨대 골계한시란 원래는 전도된 현실 상황에 대한 공간, 즉 강한 비판적 기능에서 출발하였으나 후대에는 웃음을 유발하는 회화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익살까지 포괄하게 됨으로써 애초의 비판적 기능이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Ⅲ. 『태평한화골계전』 소재 골계한시의 형상화 상상

『태평한화골계전』 270화⁶⁾ 중 약 50화에 한시(구)가 인용 또는 삽입되어 있고, 그 가운데 40여 수가 골계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실린 한시 중 상당수는 골계한시의 성격을 지니므로, 서거정이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집된 골계한시의 보고라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골계한시를 대상으로 작품의 주요 제재에 따른 작품세계의 실상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모든 작품을 일일이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품 전편이 아닌 일부만 전하는 것보다는 전편이 온전히 전하는 것들을 주로 다루기로 하겠다.

6) 박경신 역주, 앞의 책에서는 『태평한화골계전』의 이야기를 271화로 정리하고 있으나, 제1화(月團團의 이야기)는 순암본에만 실려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길어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작품은 또 安鼎福이 지은 소설 <月團團傳>으로 보기도 하기에(金鉉龍, 「徐居正의 『太平閑話滑稽傳』에 대하여 -安鼎福의 소설 <月團團傳>도 아울러 밝힘-」, 『인문과학논총』 10집,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1977), 여기에서는 총 화수에서 제외하였다.

1. 탈규범적이거나 비이성적 인물에 대한 골계

『태평한화골계전』에 수록된 골계한시의 주요 소재 중의 하나는 탈규범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인물, 즉 부정적인 인물의 행동에 대한 풍간이다. 이 책의 향수자가 대개 당대의 문인이며 관료였기 때문에 그 시적 대상도 문인 관료인 경우가 많고, 골계의 속성이 부정적인 대상이나 그 일화를 제재로 한 익살맞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작품의 제재 중에 탈규범적이고 비이성적인 인물이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먼저 신분 질서에서 상위 계급의 인물이 하위 계급의 인물에 대해, 또는 같은 신분이라 하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부당하게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풍간한 작품을 보자. 이런 작품 중에는 수령의 탐욕스러운 폭정 풍간(제3화7), 제130화), 양 아무개라는 양반의 물지각한 행동 비판(제74화), 붕어짐을 너무 좋아하여 한 고을의 붕어 씨를 말린 수령에 대한 풍간(제128화), 선비로서의 체통을 잃은 인물의 이중성 비판(제191화), 관상감 하급 관료의 假提調에 대한 원한 섞인 비난(제242화) 등을 다룬 것들이 있다.

수령으로 나가서 금양이라 일컬어지는 양공은
 누런 살찌고 수염이 유난히 빛나네.
 발바닥을 맞춤이 무슨 까닭으로 배탈을 치료하라?
 종을 매단 것은 담장을 지키라고 함이 아니었네.
 기녀를 만나 매번 순금이라 자랑하고
 웅양위의 군사라고 거짓말하여 사헌부의 그물을 피했네
 남의 집에서 계집종의 젓가슴을 만지지 말라.
 뒷간에 주인 사내가 웅크리고 앉았으니.

楊公出守稱衿陽 櫻色鬢髯別有光
 合足豈緣治腹病 懸奴非是護垣牆
 每逢娼妓誇巡禁 詐道鷹揚避憲網
 莫向他家捫婢乳 廁中蹲坐主人郎

7) 이 숫자는 박경신 역주, 앞의 책에 정리된 話數를 나타낸다.(이하 같음)

이 시는 楊氏 성을 가진 한 양반의 몰상식한 행동을 풍간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여 독자를 웃기고 있다. 이 시를 이해하려면 양공의 몰상식한 행동을 알 필요가 있다.

양씨 성을 가진 어떤 선비가 일찍이 假巡禁司가 되자 기녀를 만날 때마다 순금사를 지낸 사실을 자랑하였고,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할 때 朝服이 없어 부인이 입는 검은색 큰 두루마기와 배자를 빌려 입었다가 司憲府 관리에게 발각되자 鷹揚衛에 숨어 본래 응양위의 군사라고 거짓말하여 피신하였다. 자기 집의 계집종과 사통하려는 속셈으로 거짓으로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의원에게 처녀와 발바닥 가운데를 합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도록 하여 자기 아내가 그 말을 믿고 허락하게 만들었다. 또 종의 아내와 사통하려는데 종이 그 낚새를 알아차리자 피를 부려 그 종을 담장에 매달아 놓고 오랫동안 풀어주지 않고는 끝내 사통하기도 했다. 한번은 이웃집에 가서 주인이 사랑하는 계집종의 젖가슴을 만지다가, 주인 영감이 측간에서 뚫어지게 노려보자 부끄러워 도망가기도 했다. 뒤에 그가 衿川의 수령으로 나가게 되자 禹樞相이 이 시를 지어 놀렸다고 한다(제74화). 이런 몰상식하고 비도덕적 행동을 일삼는 양씨의 행동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이다.

우리는 물고기 중에서 본래 족속이 많았는데
 여섯 해 동안 태수의 뱃속에 모두 장사지냈네.
 나는 우리 족속이 이로부터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준비한 눈으로 서로 흐느끼며 용왕에게 하소연하였네.
 용왕이 옥황상제에게 글을 올려 아뢰니
 옥황상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편지를 옳다고 하였네.
 하루아침에 유배의 벌을 받아 사람무덤이 없어지고
 고통에서 구제하여 목숨을 살려내니 부처님도 공덕에 감복하리.
 우리가 이제 양양하게 각기 마땅한 자리를 얻었으니
 『남화경』의 수레바퀴 자국에서 구제한 것보다 훨씬 낫네.
 백성의 부모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먹는 것 때문에 모양새를 게걸스럽고 독하게 하지 말라.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옛 훌륭한 입금은 백성에게 인자하고 동물을 사랑하여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자라도 모두 편안하였음을.

我於鱗族本多族 六年葬盡太守腹
我恐我族從此絕 比目相泣訴龍伯
龍伯賤告玉皇案 玉皇頷首可其牘
一朝謫罰人塚去爲遣 救苦活生佛感功德
我今洋洋各得所 大勝南華救涸轍
寄語爲民父母者 莫因口腹姿饑毒
君不見古昔聖王仁民及愛物 鳥獸魚鼈亦咸若

이 시의 배경 정황은 다음과 같다. 延安府의 못에 붕어가 아주 많았는데, 김씨 성을 가진 어떤 태수가 붕어찜을 매우 좋아하여 여섯 해 동안에 매일 서너 차례나 먹어대니 사람들이 그를 ‘붕어무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제128화). 이 시는 이런 우스운 정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인데 화자로 설정된 붕어의 입을 통하여, 붕어찜을 좋아하는 태수에게 당한 고통과 새로 온 태수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 공덕을 칭송한 다음, 백성의 부모노릇을 하는 관원이 음식 때문에 가혹한 정사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를 당사자인 김씨가 읽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부끄러웠을 것인가? 이 시를 읽으면 절로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천문과 지리에 정밀하거나 자세하지 못하면서
입이 험하고 성질은 더러운데 누가 거스를 수 있는가?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 '얼룩 강아지'라고 한 말에
마땅히 살아서 갚으려 했는데 죽었다고 어찌 잊으랴?

天文地理不精詳 口惡性凶孰可方
親父義父斑犬語 生當欲報死何忘

이 시는 挽詩인데, 원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까지

하겠는가? 이 시의 대상은 관상감의 假提調를 지낸 安氏인데, 그는 성격이 흉악하고 음험하며 남을 모욕하고 꾸짖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는 늘 관상감의 하급관원들을 ‘얼룩 강아지(斑犬之子)’라고 부르며 꾸짖고, 관원들이 김씨 성을 가진 제조를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하자 관원들에게 “김은 너희들의 친아버지이고 나는 너희들의 의붓아버지이다.”라고 하였기에 관원들이 속으로 뼈에 새길 정도로 매우 분하게 여겼다고 한다(제242화). 아무리 상하의 위계가 분명한 관원들의 세계라 해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하급관원들이 상급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원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작품들과 비슷하되 풍간의 각도가 좀 다른 것이 있으니, 주인공과 상대방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규범이나 당위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인물을 풍간하는 작품들이다. 손님을 접대할 줄 모르는 인물에 대한 풍간(제85화, 제167화), 기녀를 만나러 오는 벗을 피하여 그 기녀와 함께 자리를 피한 사람의 행동의 제시(제109화), 바둑에 빠져 인륜의 도리를 잊은 인물에 대한 풍간(제148화), 당위에 어긋난 인물에 대한 풍간(제195화) 등을 다룬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작품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그렇지 못한 현실을 대립시킴으로써 유발되는 웃음을 독자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태수는 월다말 술을 은근하게 여기고
가인은 곤쟁이 치마를 진중하게 여기네.
반쯤 취해 청루에 벌렁 누웠으니
오늘의 풍류는 아주 충분하게 되었네.

太守慙慙驢馬酒 佳人珍重紫蝦裙
半酣大臥青樓上 今日風流到十分

이 시는 빈객을 푸대접하는 수령에 대한 못마땅한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월다말(驢馬)’은 묵은 술의 빛깔이 황적색인 것을 빗댄 표현이고, ‘곤쟁이(紫蝦)’는 시중드는 기녀의 치마빛깔과 뉘새를 빗댄 것

인데, 이 시는 빈객을 푸대접하는 고을의 수령을 나무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제85화). 빈객에 대한 접대는 전통사회의 대인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만큼 손님을 접대할 만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하면 이처럼 놀림을 받았던 것이다. 물론 주인의 집안 형편이 미치지 못하여 손님을 박대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주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량을 베풀어 이해해 준 경우도 있었다.⁸⁾

집이 불타는 것도 모르고 “무슨 불?”이라 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도 오히려 “애석하네.”라 하네.
 온갖 일에 무심하되 행마만 따지고
 평생에 흥미가 있되 곳발에만 부치네.
 머리 돌리니 천지는 무너질 듯 어지러운데
 손길 따라 풍운은 숨결 사이에 있네.
 당기고 늦추는 게 문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사람들은 돼지 치는 종인 줄 여기네.

家焚不識是何也 父死猶知可惜乎
 萬事無心論指馬 一生有興屬臬盧

- 8) 憑君莫說隴西家 그대는 언덕 서쪽의 집을 말하지 말라.
 心事蹉跎語不訛 마음의 일이 어긋났지만 말은 잘못되지 않았네.
 夜飲不須菟斗去 밤에 술 마심에 꼴망태를 가져갈 필요가 없나니
 長鬣行酒老嫗歌 수염 긴 사람은 술을 돌리고 늙은 할미는 노래한다네.

이 시는 이조의 낭관들이 동료인 李孝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으나 그 집은 쓸쓸하기 그지없는데 어떤 수염 긴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설치고 있었고, 간략하고 거친 음식에 사 온 술로 대접하는데 이웃의 金剛이라는 나이 여든 살은 된 늙은 기녀가 와서 술자리의 시중을 들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하여, 함께 갔던 李承詔(1422~1488)가 李克培(1422~1495)에게 써 준 작품이다. 이 시의 轉句는 그 자리에 가면서 어극매가 긴 밤에 술을 취하도록 마실 터이니 아이 중에게 말의 꼴을 많이 준비하라고 한 말을 상기시킨 것이다(제89화). 이처럼 주인의 대접이 처음의 기대에 어긋나기는 했지만, 빈객의 접대에서 가정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편을 고려하여 웃음으로 넘기는 아량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정한 재물을 마뜩하게 여기지 않았던 선인들의 빈부관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回頭天地迷崩折 隨手風雲在吸呼
自說弛張是文武 傍人錯比牧豬奴.

이 시는 잡기, 특히 바둑에 빠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조차 도외시한 인물을 풍간하고 있다. 바둑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한창 바둑을 두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다고 하니 “무슨 불?”이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의 상이 났다고 하는데도 바둑돌을 두면서 “아버지의 상이 났어? 애석하네.”라고 했다는 것이다(제 148화). 본분을 망각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자는 그래도 할 말이 있겠으나 주위의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돼지 치는 종의 행실쯤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2. 특이한 외모 또는 정황을 지닌 인물에 대한 골계

골계한시 중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신체의 일부분을 지닌 인물이나 극단적인 성향의 인물들을 대조적으로 다룬 것도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이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대조시킬 때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애꾸눈을 가진 세 사람의 수작(제132화), 털보와 대머리의 대조(제164화), 난장이와 키다리의 대조(제196화), 권세가와 일부러 관계를 멀리 했던 사람과 매우 가까이 했던 인물의 대비(제227화), 자식 없는 사람과 지나치게 많은 자식을 둔 사람의 대비(제253화), 늙은 관리와 어린 첩의 대조(제266화) 등을 다룬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작품들은 대개 외형적인 것의 강조를 통하여 웃음을 유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품에서 풍간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다.

- ㉠ 태수는 눈이 하나이고
내 눈도 하나이네.
아가씨의 눈도 하나이니
세 사람을 합쳐도 한 사람 반의 눈일세.

太守一目 民亦一目 娘氏一目 舍三人爲一目半

- ㉠ 방상씨는 황금빛 눈이 넷이지만
태수가 되고 아전이 되며 기녀가 될 수 있는가?
태수의 한 눈은 화살 쏘기에 좋고
아가씨의 한 눈은 바늘 꿰기에 좋고
아전의 한 눈은 망보기에 좋네.

方相氏黃金四目 能爲守爲吏爲妓乎
太守一目宜於撚箭 娘氏一目宜於穿針 鄉吏一目宜於望候

- ㉡ 태수가 비록 애꾸눈이라도 아전의 교활을 살필 수 있고
아전이 비록 애꾸눈이라도 태수의 탐욕을 볼 수 있네.
두 사람은 나보다 크지 못하여
하나의 눈인데도 채우지 못하네.

太守雖眇能察吏奸 鄉吏雖眇能見守貪
兩人不德於我 一目亦不能滿

이것들은 우연히 만난 세 애꾸눈의 사람들, 즉 태수와 아전과 기녀가 각기 자기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부른 노래이다(제132화). 아전의 노래인 ㉠은 우연히 모인 세 사람의 눈을 합쳐도 정상적인 사람의 한 사람 반밖에 안 된다는 숫자놀음이고, 태수의 노래인 ㉡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눈 하나가 오히려 편리한 점을 강조한 것이며, 기녀의 노래인 ㉢은 태수와 아전을 대조시키면서 자신을 과장하여 드러낸 것이다. 어느 작품이나 그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해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금치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㉔ 삿갓을 쓰면 먼저 발까지 드리워지고
신발을 신으면 벌써 머리까지 묻히네.
길에서 소 발자국에 끈 물을 만나면
건너려고 겨자로 배를 삼네.

着笠先垂足 穿靴已沒頭
路逢牛迹水 欲渡芥爲舟

㉕ 이불을 덮으면 다리가 드러나려 하고
집에 들어가면 먼저 머리가 부딪치네.
허리를 잘라야 관에 들어갈 테고
발을 자르면 배를 저울 수 있으리.

蓋衾欲露脚 入屋先打頭
斬腰能入櫪 刖足可撐舟

㉔은 키다리가 난장이를 회롱한 시이고, ㉕은 그 시에 차운하여 키다리를 회롱한 난장이의 시이다(제196화). 이 작품들은 모두 그 시상전개의 기본 축을 과장에 두고 있다. 대조적인 두 측면, 특히 외형적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특징적인 것을 과장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털보와 대머리의 특성을 대비한 작품에서도 과장법이 시상전개의 기본 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보다 인물이 처한 정황이 대조의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과장보다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㉖ 人道가 寅에서 일어나서
부자간에 서로 전하여 이 몸에 이르렀네.
하늘은 어찌하여 내 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가?
남의 아버가 되지 못했는데 흰 살쩍만 생겨나네.

自從人道起於寅 父子相傳到此身
我罪如何天不弔 未爲人父鬢孫新

- ㉞ 갑자년과 을축년 그리고 병인년에
정묘년과 무진년에도 분신이 태어났네.
기사·경오·신미·임신·계유년을 일컫는데
십년에 열 아들이라 면목이 새롭네.

甲子乙丑與丙寅 丁卯戊辰亦分身
曰己庚辛及壬癸 十年十子面目新

㉞은 자식이 없는 재상이 아내의 투기 때문에 평생 젊은 여자를 결혼
질하지도 못하다가 늘그막에 후회하면서 쓴 작품이고, ㉞은 십년 동안에
아들 열 명을 낳았으나 집이 가난해서 기를 형편이 못 되는 어떤 사람이
차운한 작품이다(제253화). 이 작품들은 제각기 처한 정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을 뿐 사실을 과장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생각을 보여주지
는 않고 있다. 다만 그 생각이 일반적이지 못하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고소를 금치 못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를 갖춘 것이 다음의 예이다.

생이별은 어렵고 사별은 쉽다는데
좋은 인연이 나쁜 인연으로 되었네.
늘그막의 무궁한 한이 가련하지만
어디에서 鬻膠를 얻어 끊어진 줄을 이을까?

生別離難死別易 好因緣作惡因緣
可憐白髮無窮恨 安得鬻膠續斷絃.

이 시는 어떤 늙은 조정 관리가 한 어린 아가씨를 첩으로 삼았다가 삼
년이 지나도록 잠자리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자 떠나가는 아가씨를 마지
못해 보내고 나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이 지은 작품이다(제

266화). 이 시는 늙고 병든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젊은 침을 구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노인의 행동을 비웃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정황을 회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한편 대조적인 인물을 다루기는 하되 사실뿐 아니라 시인의 관점까지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火鼠와 가을벌레는 서로 생각하고 의논할 수 없거늘
인간세상의 차가움과 뜨거움을 편벽된 성품으로 견디랴?
분명 염라대왕이 평화의 약을 만드느라고
문득 뜨거운 금을 죽여 차가운 威를 補하였으리.

火鼠秋蟲不思議 人間寒熱性偏堪
閻羅定作平和劑 殺却炎金補冷威

이 시의 배경에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두 인물이 있다. 한 사람은 권세 있는 귀족들을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아 높은 벼슬을 지내지 못하고 죽자 사람들이 '얼음을 짊어져서 얼어서 죽은 것(負冰凍死)'으로 생각하던 威氏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 집을 분주하게 쫓아다니며 좋은 관직을 얻었지만 갑자기 죽자 사람들이 '불을 가까이 하여 데어서 죽은 것'(近熱爛死)으로 생각하던 金氏였다(제227화). 이 시는 두 인물이 죽은 이유를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삶의 방식에서 찾으려 하며, 인생은 극단을 지양하고 중용을 취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3. 가식적인 자세를 지닌 기녀에 대한 골계

조선시대 문신들은 자기들 이외에 주변의 인물에 대한 견문을 작품화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대상이 기녀였다. 기녀는 문신들의 유희 자리와 풍류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쉽고 흔

하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다. 그런데 골계한시에서는 기녀가 지닌 정은 진실이 배제된 가식적인 것으로서, 양반을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재물을 노리는 다른 목적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서거정을 포함한 당대 문신들의 기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일단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 작품들은 대개 남자는 기녀에게 진정을 보이지만 기녀는 가식적인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기녀와 관련된 사실을 다루고 있다(제44화, 제121화, 제122화, 제182화, 제184화).

십년 동안 낭군의 수염을 뽑아
 엮어서 천 자의 담요를 만드네.
 아침에 새 낭군과 앉고
 저녁에 새 낭군과 잠자네.
 십년 동안 낭군의 이빨을 뽑았는데
 낭군의 이빨들이 제각기 다르네.
 끝내는 쓸데가 없어
 찌른 흙 속에 버려지네.
 나는 바라네, 미인의 마음이
 연잎의 이슬처럼 되지 않기를.
 차라리 수염으로 담요를 짤지언정
 이빨을 흙더미에 버리지 말라.

十年摘郎鬚 編作千尺氈
 朝與新夫坐 暮與新夫眠
 十年折郎齒 郎齒萬不同
 終然無用處 棄捐糞土中
 我願美人心 莫作荷葉露
 寧用鬚作氈 莫用齒棄土

이 시는 평양의 기녀 집에 수십 일을 머문 선비를 조롱한 작품이다(제122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삽화는 다른 사람의 일화에서 빌린 것들이다. 낭군의 수염을 뽑아 담요를 짠다는 것과 기녀의 마음이 연잎의 이슬과 같다는 것은 欽差內官 黃儼을 따라 조선에 온 邵氏 성을 가진 어떤

연경 사람이 관기를 사랑한 나머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녀가 지어준 시에 나오는 것이고(제121화),⁹⁾ 기녀에게 이빨을 뽑아준다는 것은 雞林[현재의 경주]에 온 서울의 한 소년이 관아의 창기에게 정을 쏟았다가 헤어질 때 그녀의 요구에 따라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앞니를 빼주었으나 금방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앞니를 찾으러 종을 보내었더니 그녀는 남자들의 이빨이 가득한 자루를 내놓더라는 일화를 끌어온 것이다(제44화). 이처럼 기녀를 대상으로 한 끝제한시는 대개 기녀에게는 정절을 요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녀는 민기조차 어려운 존재라는 부정적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기녀가 물에 빠지려고 하는 계락을 믿지 말라.
거기에서 노래하고 웃은 것이 모두 은그릇 때문이었네.
지금까지 뱃사공의 말이 남아 있나니
천하에서 어리석은 이는 선비들이네.

莫信娼家墮水謀 箇中歌笑爲銀甌
至今留得篙工話 天下癡兒是士流.

이 시는 금강의 나룻배에서 기녀와 이별하게 된 어떤 조정 관리가, 통곡하면서 물에 빠져 죽으려는 시늉을 하는 기녀에게 속아 은그릇을 주고 떠나자마자, 그 기녀는 "소리내어 운 것도 이것 때문이고 노래한 것도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니, 뱃사공이 "천하에서 어리석은 자는 선비들이다."라고 했다는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제184화). 기녀가 떠나가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듯이 하는 행동은 재물을 얻기 위한 시늉에 지나지 않는데도 선비들은 그 행동에 속아 재물을 탕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商山[현재의 상주]의 기녀와 새재(鳥嶺)에서

9) 妾心正如荷葉露 내 마음은 정히 연잎의 이슬과 같아서
一邊圓了一邊斷 한쪽이 둥글어지면 한쪽이 끊어지네.
願摘郎君頰下鬚 바라건대 낭군님의 턱 아래 수염을 뽑아
織成美鬪待今夫 아름다운 담요를 짜서 지금 지아비를 기다리리.

이별할 때 기녀의 시중을 드는 할미의 울음과 그럴듯한 말솜씨에 넘어가서 그 보상으로 옷을 벗어주고 추위에 떨었던 한 관리의 행동을 그린 작품도 있다(제182화).¹⁰⁾

서원의 예쁜 기녀 하양대는
노래와 춤으로 무리 속에서 홀로 재주를 떨치네.
당시 문사들의 모임이 가장 한스러운데
마침 어디에서 무인이 왔던가?
쇠 탄환이 갑자기 풍류의 구멍으로 들어가더니
옥 이빨이 도리어 열린 성가퀴처럼 되었네.
이제는 대들보를 감싸던 소리가 도리어 듣기 싫게 되었으니
공연히 좌객들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음을 한탄하게 하네.

西原佳妓下陽臺 歌舞叢中獨擅才
取恨當時文士會 適從何處武人來
金丸忽入風流窟 玉齒翻成脾脫開
從此繞梁聲反澁 空教坐客恨難裁

이 시는 西原의 기녀 下陽臺가 겪은 불행한 사건, 즉 천하에 가무로 이름을 떨치던 아름다운 기녀가 우연한 사고로 앞니를 부러뜨리게 되어 많은 사람의 조롱의 대상이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제225화) 문사들의 모임에서 말석에 앉아 있던 어떤 무인이 참새를 향해 쏜 탄환이 처마에 부딪치고 반사되어 나와서 한창 신나게 노래를 하던 그녀의 입으로 들어가 앞니를 부러뜨린 사건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선비가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속에 하양대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녀의 회화화된 모습을 그린 것을 보면, 기녀를 바라보는 당대 문인들의 일반적 시각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 鳥嶺佳兒泣別時 새재에서 아리따운 기녀와 울면서 이별할 때에
老婆何物亦啼爲 늙은 할미는 어떤 물건이기에 또한 울었는가?
解衣一贈緣心蠱 옷을 벗어 일단 준 것은 마음의 미혹 때문인데
忍凍吟寒悔可追 추위를 참고 신음하며 뉘우친들 미칠 수 있으랴?

4. 기타 인물에 대한 골계

『태평한화골계전』에는 앞에서 살핀 주요 제재 이외에도 골계의 자료로 사용된 여러 인물의 다양한 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그것들은 대개 일상적이지만 특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당시의 식자들 사이에서 인구에 회자되었던 것들로 보인다.

소코에 침향은 일찍이 그런 날이 있었겠지만
말머리에 빨날 날은 또 어느 때인가?
과거를 세 번 보아 세 번 떨어질 줄을
할아버지의 눈에 먼저 조짐으로 알았다네.

牛鼻沉香曾有日 馬頭生角復何時
三赴春園三落第 卯君眼孔識先知

이 시는 책을 많이 모았던 許氏 성을 가진 宰樞가 책을 세 손자 중 편애하는 막내에게 모두 전해주고자 하여, 맏이 逕은 말달리기와 칼쓰기를 좋아하고 둘째 迪은 싹이 났으나 꽃을 피울 정도가 못 되며 오직 막내 達만이 어릴 때부터 공부에 뜻을 두어 학문이 빼어나다고 하고, 첫째와 둘째에게 책은 '소코에 沉香'이라고 했다는 배경 정황을 알아야 이해될 수 있다(118화). 이 시는 어떤 사람이 둘째인 迪이 낙제한 것을 희롱하여 지은 것인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책을 '소코에 침향'이라고 하였으니 과거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시는 집안의 어른인 조부의 권위에 의해 왜곡된 가족 현실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다.

우리 집에는 한두 항아리의 소금에 절인 채소가 있어
늙은 아내와 아침저녁으로 서로 권하네.
그대는 고기를 먹으니 장차 어찌하라?
아마 흰떡과 누런 채소가 무엇인지 모르리.

吾家一兩甕塩齏 相勸朝昏有老妻
肉食如君將底用 白齏黃菜故應迷

이 시는 서거정이 누런 채소 절임을 벗에게 대접하면서 지은 것인데, 사대부들 사이에 유행하던 성에 대한 은어를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어떤 늙은이의 일화를 통하여 본처를 '흰떡'으로, 계집종을 '누런 채소'로 부른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제137화),¹¹⁾ 시에 그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독자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고 있다. 선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중의법을 사용하여 작품 속에 담고서도 이 시를 외설로 떨어지지 않게 한 그의 대가다운 솜씨를 엿볼 수 있다.

다음 시도 남녀의 성문제를 다룬 것인데 이 작품과는 품격이 현격히 다르다.

오늘밤의 모임이 어떠한가?
셋이 함께 이불을 덮고 자네.
입을 벌리면 '品' 자가 이루어지고
몸을 나란히 하면 문득 '川' 자가 되네.
앞가슴은 들을 안기 어려운데
뒷등은 두 주먹을 실컷 맞네.
원앙의 꿈을 이루지 못하니
좋은 인연을 저버린 것을 탄식할 만하네.

何如今夜會 三箇共衾眠
開口能成品 竝身忽作川
胸前難兩合 背後飽雙拳
未遂鴛鴦夢 堪嗟負好緣.

이 시는 풍류를 좋아하는 어떤 고을 수령이 이웃고을에 갔다가 두 기녀와 함께 자면서 혼쫓난 사실을 바탕으로 호사가가 쓴 작품이다(제140

11) 비슷한 이야기가 張漢宗(1768~?)의 『禦睡新話』에도 실려 있다.

화). 이 시는 주어진 상황 자체가 웃음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그 희극적 상황을 다루는 솜씨 또한 종횡무진으로 작품에서 펼쳐진다. ‘品’ ‘川’ 등의 회화적 문자 놀음, 가슴과 등의 대조,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미련의 감정 등이 함께 어우러져 한바탕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삼베옷을 한 번 입어 또 십년인데
천 곳을 깊고 백 군데에 구멍나서 메추라기와 같네.
추워서 사지를 숨기면 목을 감춘 자라요
차가워서 두 어깨를 다스리면 목을 움츠린 방어라네.
다 해진 누런 속옷에 얼음은 뼈에 스미고
한쪽만 닳은 검은 모자에 눈은 이마에 가득하네.
누더기를 도무지 쓸데없다고 말하지 말라.
누우면 흠이붙이요 앉으면 담요가 되네.

一着麻衣又十年 千瘡百孔似鶉懸
寒藏四体藏頭髓 冷縮雙肩縮頸鱗
弊盡猶裙冰入骨 欹殘烏帽雪盈顛
莫言檻樓渾無用 臥作裯衾坐作氈

이 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어느 작은 고을의 學長이 수령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려고 올린 시 가운데 하나인 옷을 구걸하는 시이다 (제146화). 선비가 안빈낙도하는 삶의 방식을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라고 하지만 가난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와중에서도 학장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스스로를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지독한 가난의 모습을 형용하고 있는 데서 웃음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그런 가난 속에서도 스스로 여유를 찾는 모습에서 안쓰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IV. 골계한시의 계승

일반 한시와는 그 지향이 매우 다른 골계한시는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 속에 많은 작품이 수집되어 간행된 뒤에 다시 그것들을 수집하는 노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여, 그 이후에도 문인들 사이에서 수없이 생산되었을 골계한시들이 집대성되지는 못하였다. 골계한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상황을 그리되 풍간의 정신과 의사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한시인 만큼, 이 두 측면을 함께 계승한 작품들을 찾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풍간의 정신을 계승한 작품들은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정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사가 개입되기 어려우며, 의사를 앞세운 작품들은 웃음을 유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풍간의 정신을 함께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石洲 權鐸(1569~1612)이나 茶山 丁若鏞(1762~1836)의 사회시는 풍간 정신이 중심이지만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宋世琳(1479~?)의 『禦眠楯』, 成汝學(?~?)의 『續禦眠楯』 등에 삽입된 시들은 의사를 바탕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으나 풍간 정신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제작된 몇 작품은 골계한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덥수룩한 머리털에 옷을 어지럽게 늘어뜨리고
 병 같지만 근심 앓고 머리감는 일 드무네.
 갓난 아이 젖 빨리다 낮잠 잘 생각하고
 손으로 이 잡으며 처마의 햇살 즐기네.
 봄에 뽕이 들에 가득해도 어찌 광주리 잡으랴?
 가을에 기러기 소리 들려도 벼뜰에 오르기 싫어하네.
 이웃에서 굶하는 풍물소리 들리면
 사립문을 반만 닫고 나는 듯이 달려가네.

蓬蓬頭髮亂垂衣 似病非愁洗沐稀
 乳吮襁兒謀午睡 手探飢虱愛簷暉
 春桑滿野寧携筥 秋雁傳聲厭上機
 隣里事神聞擊筑 柴扉半捲走如飛¹²⁾

李沃(1641~1698)의 이 작품은 게으르기 그지없는 아낙네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에 대한 풍간과 익살을 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골계한시의 기본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다만 풍간의 대상이 최고의 권력자인 왕, 또는 관료가 아닌 일반 상민의 아녀자라는 사실이 조금 특이할 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풍간의 대상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는 주로 왕이나 제후였고,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에서는 주로 관료나 그에 준하는 사람, 상급자 등이었던 것이, 조선후기에 오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모든 계층의 부정적 인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구전되다가 나중에는 표현이 일부분 바뀌기도 하면서 김삿갓(본명 金炳淵, 1807~1863)의 시로 오인되기도 하였는데,¹³⁾ 이것은 김삿갓의 시에 이런 작품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김삿갓의 시에 이와 비슷한 골계한시가 많은 만큼 시의 작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김삿갓의 작품으로 미루어 짐작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삿갓의 시 중에서 『태평한화골계전』의 골계한시와 직접 대비될 수 있는 시를 1수만 보기로 하겠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월인데
 한 명의 처와 한 명의 첩이 가장 가련하네.
 원앙이 새겨진 베개 위에 세 개의 머리가 나란하고
 비취가 수놓인 이불 속에 여섯 개의 팔이 이어지네.
 입을 벌려 웃을 때는 온통 ‘品’자와 같더니
 몸을 뒤집어 누운 곳은 ‘川’자로 변하네.
 동편에서 끝내기 전에 서편에 일이 생기니
 다시 동편에서 주먹으로 두들기네.

12) 李沃, <懶婦>(洪萬宗, 『詩評補遺』下).

13) 朴午陽 편, <懶婦>: “無病無憂洗浴稀 十年猶着嫁時衣 乳連裸兒謀午睡 手拾裙風愛簪暉 動身便碎厨中器 搔首愁看壁上機 忽聞隣家神袞 柴門半掩走如飛”(『金笠詩集』, 文苑社, 1978, 14면). 朴惠淑, 「金삿갓詩 研究」(국문학연구 67,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66면)에 의하면, 이 시는 李應洙 편, 大増補版 『金笠詩集』(漢城圖書株式會社, 1941)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不熱不寒二月天 一妻一妾最堪憐
 鴛鴦枕上三頭並 翡翠衾中六臂連
 開口笑時渾似品 翻身臥處變成川
 東邊未了西邊事 更向東邊打玉拳¹⁴⁾

이 시는 처와 첩을 둔 한 남편의 잠자리 모습을 그린 것으로, 풍간보다는 익살에 중심이 놓여 있지만 처첩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풍간 정신이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 이 작품은 앞에서 살펴본 『태평한화골계전』의 제 140화에 설정된, 어떤 고을 수령이 이웃고을에 갔다가 두 기녀와 함께 자면서 혼쫓난 사실을 바탕으로 쓴 시와 그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수령’이 신분을 알 수 없는 ‘어떤 남자’로, ‘두 기생’이 ‘처와 첩’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상전개의 방식이 비슷하고 세 사람이 놓인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글자인 ‘品’과 ‘川’이라는 글자까지 똑같은 것을 보면 이 두 작품의 영향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시앗싸움에는 부처님도 돌아왔다는 속담이 있지만, 시앗싸움보다 더한 한 남편과 두 처첩의 동침이라는 상황은 생각하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게 마련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서거정 이후 골계한시는 한국 한시사의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고 겨우 명맥이 이어진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 가문의 불행 때문에 제도권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가난과 푸대접 속에서 시를 통한 풍간과 익살로 시름을 달래며 살았던 김삿갓의 시에서 다시 그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골계한시의 풍간 정신과 익살은 한시를 통해 계승되기보다는 오히려 구비문학과 한글문학 쪽으로 이어져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하는 서민들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사설시조, 판소리, 가면극 등에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제반 상황이 새롭게 변해 가는 추세 속에서 지배층의 부조리와 당대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풍간하거나, 현실의 제반 질곡에서 오는 고통을 익살로써 극복하려는 욕

14) 金炳淵, <衾中二妻>(金福植·丁桂鎮, 『김삿갓 평생시』, 明志出版社, 1991, 124면).

구 및 서민의식의 고양에 따라 그들의 의식과 수준에 어울리는 표현매체와 양식을 모색하던 중, 한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양식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만큼 접근이 용이하고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구비문학과 한글문학의 양식을 선택하여 발전시킨 결과라고 하겠다. 조선전기에는 한시를 통하여 양반 문인들의 풍간 정신과 익살을 대변하던 골계한시의 정신과 미학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한글양식과 구비문학을 통하여 서민들의 정신과 미학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골계는 애초에 빼어난 말솜씨와 익살을 바탕으로 자기의 체신을 지키거나 풍간하는 것, 또는 우스갯소리 속에 바른 길을 제시하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말로 윗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등을 뜻하는 말이었다. 골계한시는 골계를 다룬 한시이므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풍간 정신과 익살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골계한시는 원래 전도된 현실 상황에 대한 풍간, 즉 강한 비판적 기능에서 출발하였으나 후대에는 웃음을 유발하는 희화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익살까지 포괄하게 됨으로써 애초의 비판적 기능이 약화되기도 한다.

골계한시는 한시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재와는 매우 다른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집된 골계한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에는 탈규범적이거나 비이성적 인물, 특이한 외모 또는 정황을 지닌 인물, 가식적인 기녀 등과 기타의 골계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풍간과 익살을 담은 골계한시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서거정 이후 풍간과 익살의 두 측면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골계한시의 명맥은 이육, 김삿갓 등의 한시로 이어지지만 그것이 한국 한시사의 전면에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골계한시의 생기발랄한 풍간 정신

과 익살은 한시보다는 오히려 구비문학과 한글문학 쪽으로 이어져서 조선 후기 서민들의 대표적 문학양식인 사설시조, 판소리, 가면극 등에 반영된 핵심적 미의식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하겠다.